

## 참여연구원 칼럼



## 남북한 사람들의 상호 인식

이 하 연 (북한대학원대학교)

올들어 확실히 남북한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연일 새 소식과 사건들을 접하고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2000년이나 2007년에는 느끼지 못했던 관심과 설렘이 공유된다. 특히 그동안 쉽게 볼 수 없었던 북한 지도자의 모습(회담장에서 농담을 하거나 공연을 즐기며 관람하는 모습)이나 외신에서 보도되는 최근의 평양 시내와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보면서, 북한과 북한 사람들에 대해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정서들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폐쇄적이고 고집 세고 대책 없이 자존심만 강할 것 같던 북한의 지도층, 그리고 전체주의 체제 속에서 수동적이고 무지하며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던 북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이 남북한 간 관계의 역동 속에서 함께 재구성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어떤 대상(대상이 속한 집단 구성원들)의 특성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부른다. 고정관념 내용은 긍정적(예: 친절하다, 부지런하다), 부정적(예: 게으르다, 이기적이다), 또는 비교적 중립적(예: 합리적이다) 속성 모두를 포함하며, 북한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역시 여러 차원의 속성들로 구성될 수 있다. 김혜숙(2002)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남한) 대학생들은 북한 사람들을 특징 짓는 속성으로 협동·단결력이 높고, 순박하고 정이 많으나, 배타적·폐쇄적·공격적인 것으로 응답하였다(특성 평가 점수 순으로 제시).

반면 합리적이거나 개성을 존중하는 속성은 북한 사람들의 특성으로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해당 연구의 선행 연구(참조: 김혜숙, 오승섭, 1999)에 비해 북한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내용이 전반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저자들은 해석하였다. 즉, 2000년대 초반 남한 대학생들의 북한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은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당시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 정세의 변화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도 다소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본 연구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 확장 연구를 목적으로, 남/북한 출신의 20대~60대 성인들을 대상으로 본인 및 상대방(이 속한 집단), 즉, 남/북한 사람들 각각에 대한 고정관념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2018년 8월 진행). 주요 결과를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 연구(김혜숙, 2002)에서 사용됐던 24개의 형용사(속성) 중 북한 사람들의 특성 순위를 10개까지 나열했을 때, 북한 출신 응답자(북한이탈주민)와 남한 출신 응답자 양측에서 공통적으로 비교적 긍정적 속성들(“협동·단결력이 강하다”, “순박하다”, “부지런하다”, “질서 의식이 강하다”, “검소하다”, “주체성이 강하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남한 출신 응답자에 게서만 나타난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는, “폐쇄적”, “공격적”, “배타적”, “지배적”이라는 응답이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북한 출신 응답자들은 북한 사람들의 특성으로 “개성을 존중한다”, “합리적이다”와 같은 속성을 꼽았다. 이는 2002년의 남한 대학생들과 2018년의 남한 출신 성인들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 참여연구원 칼럼

그렇다면 남한 사람들에 대한 남/북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어떨까?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24개 형용사 중 남한 사람들을 특징 짓는 속성 10개의 순위를 나열하였을 때, 남/북한 출신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응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지런하다”, “정ใจ 많다”, “친절하다”, “합리적이다”, “개성을 존중한다”, “개인주의적이다”, “이기적/타산적이다”, “권위주의적이다”. 즉 남한 사람들의 특성으로 10개 중 8개의 속성이 일치하여 남한 출신 응답자들과 (현재 남한에서 생활 중인) 북한 출신 응답자들의 고정관념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이할 점은 남/북한 출신 무관하게 남한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긍정적, 부정적 특성이 함께 공유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한 출신 주민들이 공유하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내용이 대부분 긍정적이거나 중립적 차원이었던 반면, 남/북한 출신 주민들이 공유하는 남한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내용에는 “이기적/타산적이다”, “권위주의적이다” 등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상기한 본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기초적 기술통계치 일부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 남북한 사람들의 실제 특성과 상호 인식(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도 있고, 응답자 편향 또는 응답자들이 속한 모 집단 구성원들 간 사회적 상호작용의 편

향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향후 본 조사연구에서 도출되는 전체 결과들을 종합하여 해석하고 선행 연구들과도 비교하여 가장 타당한 메시지를 구축하고, 또 이에 기반 한 후속 연구들과 현실에서의 적용 및 실천이 필요하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함께 살아갈 공동체 구성원들의 특성, 공동체 간 상호 인식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만약 개선 또는 새롭게 형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실행해나갈 수 있을지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빨리 현재의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류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 참고문헌.

김혜숙 (2002).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 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35-50.

김혜숙, 오승섭 (1999). 북한사람에 대한 대학생과 일반인의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외국인에 대한 태도와 의 비교. 심리과학, 8(1), 1-22.

## 기획기사

## 동독 전 총리의 뼈 있는 조언... "평화는 작은 일에서부터"

17일 한스 모드로 전 총리 '통일 독일의 경험과 한반도에의 함의' 강연

최 종 환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아래 평양회담) 개최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을 위해선 상호 신뢰 회복과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스 모드로(Hans Modrow) 동독 전 총리는 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 안호영) 대회의실에서 열린 '통일 독일의 경험과 한반도에의 함의' 강연에서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이후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이 열리면서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다"라면서 "남북한이 처음부터 큰 것을 바라보고 가기보다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북한대학원대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통일부 관계자 및 경남대와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연구자 등이 참석했다. 독일의 통일 과정

을 들여다보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1928년 출생한 한스 모드로 전 총리는 동독의 정치인 이자, 공산당 마지막 수장을 지냈다. 2차 세계대전(1942~1945, 국민돌격대 소속으로 참전) 당시 전쟁포로가 된 후 사회주의통일당(SED)에 입당해 본격적인 정치인 인생을 걸었다.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동독에서 여행과 언론 자유 보장 등 개혁 정책을 추진했으며, 통일 이후에는 5년 간 유럽의회 의원(1999년 7월 20일~2004년 7월 19일)을 지내는 등 꾸준히 대외활동을 펼쳤다.

한스 모드로 전 총리는 1945년 이후 독일 70년 역사를 관통하는 산 증인으로서, 강연에서 독일의 통일 전후 과정을 맥락적으로 짚어보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사진> 지난 9월 17일 한스 모드로 전 총리 강연

## 북미정상회담 자체만으로 '긍정적'

한스 모드로 전 총리는 최근 벌어진 한반도 정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사실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지도자가 서로 악수하는 것만으로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라면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고, 정치적인 노력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층 가까워진 남북관계에 대해 "동독도 올림픽에서 단일팀을 꾸린 경험이 있다. 작은 이벤트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게 있다"라면서 "(통일을 위한)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서로 가까워지려는 모습과 공통의 이해관계를 찾는 게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이라는 국가적 대업을 이루기 위해선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실제 통일 전 동·서독은 1956년부터 1960·1964년 여름과 겨울 올림픽에서 모두 단일팀으로 참가했다. 분단 직후 서독만이 독일을 대표하는 유일한 국가올림픽위원회로 인정됐기 때문에 동독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선 단일팀은 어쩔 수 없는 절차였다. 이후 양국은 선수 선발을 오직 실력으로만 뽑아 단일팀을 구성했고,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웠다. 작은 일부터 세밀하게 준비한 덕분에 두 나라는 스포츠를 통한 우애를 다질 수 있었다.

## "통일은 단계적 과정 거쳐야"

특히 한스 모드로 전 총리는 독일 통일 과정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계약 공동체' '연합국가' 등을 제시했다. 계약 공동체는 두 국가가 존속하면서 협력하는 과정으로, 통일 이후 급격한 변화로 초래될 정치·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이때 중요한 건 시민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다. 통일 전 동·서독에는 정부보다 민간 주도의 교류가 활발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 개인이 자유롭게 동독을 방문해 다양한 사업과 화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다음 단계로, 관계가 일정 수준 개선되면 연합국가로서 본격적인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일 해법은 김영삼 정부가 1994년 제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화해·협력 단계를 시작으로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3단계 프로세스가 통일정책의 기본 방향인 것. 남북연합은 한스 모드로 전 총리가 설명했듯 "통일로 가는 중간과정으로 남북한이 상호 협력해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과도적 통일 체제"를 말한다. 끝으로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조언으로 그는 "이산가족상봉과 개성공단, 유라시아 철도 구상 등 여러 굵직한 현안이 있지만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면서 "중요한 건 대북정책의 일관성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합의문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 본 기사는 9월 18일 <오마이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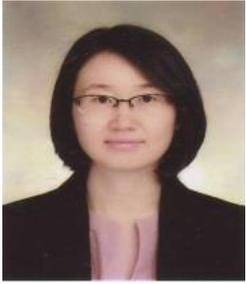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 정치체제와 마음의 습속  
《현대북한연구》 제 21권 제 2호(2018)

이 연구는 북한의 정치체제와 조응하는 북한주민의 ‘마음의 습속’에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도자와 인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 신소제도, 더 나아가 지도자의 권위를 강조한 주체사상이 만들어내는 북한주민의 마음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신소(伸訴)제도란 억울한 사연을 권력자에게 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북한체제의 제도를 의미하며, 주체사상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바탕으로 한 이념과 종교적 의례를 특징으로 한다. 주체사상이라는 통치이데올로기는 정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생활양식이자 윤리로서 주민들의 일상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것의 실천 기제 중 하나가 바로 신소제도이다. 한편 최근 김정은의 3대 세습과 시장화 등의 사회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북한주민의 마음에 균열 조짐이 포착되기도 하지만 국가 형성 이래 구축된 마음의 습속은 쉽사리 대체될 수 없어 북한 사회 내 급격한 변혁이나 체계의 붕괴를 막아서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만큼 주민들의 몸에 새겨진 도덕률로서의 마음의 습속은 지금의 북한사회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이후 변화의 향방과 폭을 결정짓는 사회적 힘의 일부분이다.



장윤미 (서강대학교)

### '안중근 기념'을 둘러싼 한반도 마음체계의 갈등구조 《동아연구》 제 75권(2018)

안중근은 남북한 민중의 마음속에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민족의 기개를 드높인 자랑스러운 민족 영웅이다. 또한 안중근은 근현대 시기 한반도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 알려지며 다양한 평가를 받아온 동아시아의 인물이다. 분단과 냉전의 역사를 지나오며 각기 이질적인 체제를 구축해온 남북한의 현대사 과정에서 안중근은 남북한이 동일한 '민족'임을 상상하고 '민족의식'을 공유하게 만드는 역사적 매개인물이다. 그러나 동시에 남북한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 변화와 권력의 통치 논리에 따라 다르게 기념되고 맥락화된 '분단된 영웅'이자 국민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남북 권력에 의해 동원되고 상징화되어온 인물이기도 하다.

1948년 남과 북이 건국하는 과정에서 차용한 역사 정통성은 '항일'과 관련된 역사이다. 이에 따라 남한 정권은 기미 삼일운동의 독립정신 계승을 강조했고,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역사를 개인의 정통성 강화와 연결시킨다.

식민시기 좌우파 간에 독립운동의 노선과 방향을 두고 드러난 균열은 분단 이후 그대로 이어졌고, 남북한 모두 지배 권력에 의한 안중근 기념화가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각각 권력 정통성의 근거와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남한의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성과 민주화의 이념이 정통성으로 확보되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존 친일파가 안중근 기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문제제기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안중근 기념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다. 남북화해, 한반도평화라는 대전환 시대를 앞두고 안중근이라는 남북한 공유의 역사인물이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마음적 전환'이 발생할 수 있는 역사기역으로 작동하려면 안중근을 일국적 차원이 아니라 한반도적 맥락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시대에 맞는 재의미화가 필요하다.

## 연구단 동정

- 본 연구단 사업단 연구진 교체가 있었습니다. 연구교수 채석진, 박세진 박사, 연구보조원 손유나 박사과정생의 임용이 종료되고, 신임 연구교수로 김태경, 최선경 박사를 초빙하였습니다.
- 북한대학원대학교 SSK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체하여 탈북자 '연극'을 개최하였습니다. 행사는 2018년 6월 19일 사전 심포지엄을 진행한 후, 같은 달 22일부터 3일간 서울 설치극장 정미소에서 공연하였으며 북한대학원 교직원들, 학생들, 관심 있는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연극 '탈북자'는 대만의 왕모링이 연출하고 감독한 작품으로 아시아의 근현대사에서 학살의 기억을 통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 연극 '탈북자'의 대만 연출가 왕모림(오른쪽)과 출연 배우들, 출처: 부산일보



◀ 지난 7월 14일(토)~20일(금) 6박7일간 <북한대학원대학교 2018년 조중접경지역답사>가 있었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시작하여 집안, 이도백하/백두산, 연길, 훈춘에 이르는 북한(조선)-중국 접경지역을 횡단하는 일정으로 이루어진 이번 답사에는 본 연구사업단의 박세진, 이하연 전임연구원(북한대학원대학교)과 채석진 공동연구원(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답사를 통하여 연구단은 변화하는 중국과 북한의 풍경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남북한 주민 간 교류, 남북한 주민의 마음 통합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연구단 동정



◀북한대학원대학교 SSK남북한 마음통합 연구센터 참여 연구원이 8월12일(일)부터 15일(수)까지 중국 상해대학교에서 열린 ‘Crossroads in Cultural Studies’ 컨퍼런스에 참가했습니다. 본 연구사업단에서는 구갑우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North Korean Novelist Hansorya Talks of Peace during the Korean War’, 김성경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Imagining the Recovery of the Lost Lands: Dark Tourism in Sino-North Korea Borderland?’, 이향진 교수(릿고대학교) ‘North Korea in Zainichi Cinema: Imaging Home and ining’, 리우야팡 공동연구원(대만국립교통대학) ‘Situating the Sounds’s Warfare in the Borders of Cold War: Reflections on “K-pop as Weapon”’, 채석진 공동연구원(서울과학기술대학교) ‘Automation and New Forms of Labour’, ‘Ethics Intimate Ethnography’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8월 24일(금)~26일(일), 독일 베를린 유럽아카데미에서 실시된 독일 코리아협회(KV)와 본 연구사업단 공동 주최 국제 세미나(“적(敵)대화로 인한 사회 양극화: 독일과 한국의 학교 교육 비교”)가 개최되었습니다. 총 3일에 걸친 이번 세미나에서는 독일과 남/북한에서 각각 서로에 대한 적대화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를 비교하고, 사회 양극화와 적대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학제 간, 그리고 학계와 현장에 걸쳐있는 여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본 연구사업단에서는 양문수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김성경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윤철기 교수(서울교육대학교), 이하연 연구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가 참여하여 남북한의 현재의 마음 내면에 대하여, 그리고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9월 17일(월), 북한대학원대학교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로 한스 모드로 전 동독총리 초청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동서독 통일 직전 구동독의 마지막 총리를 역임한 한스 모드로 총리는 “통일 독일의 경험과 한반도에의 함의”라는 제목으로, ○ 독일 분단의 배경과 그 과정 ○ 독일 통일의 역사적 흐름 ○ 현재 남북한 정세에 및 최근의 평양 방문 소회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본 사업단과 청중들은 남북한 분단의 역사를 되짚고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방향성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연구단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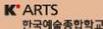
◀북한대학원대학교 SSK남북한 마음통합 연구센터가 8월20일(월)~24일(금) 5일간 북한연구자와 학생들을 위해 여름방학 방법론 특강 '담론으로 본 북한학'을 진행했습니다. 북한 연구 방법론 관련 강사진을 초빙하여 강의의 수준을 높였습니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선 강진웅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 연구 동향 및 질적방법론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이어 김수철 건국대학교 연구교수는 비판적 담화 및 담론 분석을, 엄현숙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가 논문 분석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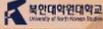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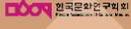
향후 일정

**10월 7일 일요일**  
**14:30- 18:00**  
**부산영상산업센터 컨퍼런스 홀 (11층)**

**7 Oct**  
**14:30- 18:00**  
**Conference Hall,**  
**Busan Visual Industry Center (11F)**

공동주최 Co-Hosts



◀ 10/7(일) 오후 14:30~18:00

본연구사업단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부설 ‘트랜스: 아시아영상 문화연구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문화연구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BIFF Forum “고려” 시네마 인터-코리아 아카이브1’가 개최됩니다. “고려” 시네마는 고려인(중앙 아시아, 러시아에 이주한 한인 디아스포라) 감독이나 프로듀서에 의해 제작된 일련의 영화들에 대한 발표와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될 <고려사람>, <바둑의 땅>을 제작한 송 라브렌티 감독은 카자흐스탄에서 출생하여 모스크바 국립영화학교에서 수학하였고, 소련 연방의 소수 민족 출신의 감독, 제작자와 함께 <너와 나>, <송 시네마>를 결성하여 만든 영화들은 개인, 집단 창작의 형식으로 유라시아의 생태, 종교, 소수 민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소련, 북한 출신 고려인인 최국인 감독은 카자흐스탄의 대표적 감독과 공동으로 <용의 해>라는 대작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중앙 아시아의 정치적 공간에서 디아스포라를 넘어서는 소수 민족의 연대 (affiliation), 하위주체의 세계주의적(subaltern cosmopolitanism) 삶의 양식과 사유 공간에 대한 국내외 관련 학자들의 생산적인 비평이 이루어질 것 입니다.

**프로그램 Program**

**1부: 월드 시네마로서의 "고려" 시네마, 소수민족 고려사람**

사회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표	김소영 (한국예술종합학교)	(1) 하위주체의 코즈모폴리타니즘: 디아스포라 아카이브의 고려 시네마 그리고 망명 삼부작
	박현귀 (중앙대학교)	(2) 역사성, 탈영토성, 그리고 고려사람 재현의 정치학
	스티븐 리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3) 소비에트 한국인의 프레임: 비교 연구의 새가지 접근
토론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이규 (뉴욕시립대학교), 이상준 (성가톨릭대학교)	

**2부: 고려 시네마 라운드테이블**

사회	하승우 (한국예술종합학교)	
토론	임지현 (서강대학교), 김경구 (이화여자대학교), 윌터 K. 류 (시인, 학자)	

**Session 1: Worlding 'Koryo' Cinema, Koryo Saram(people) Minority in the World**

Chair	Lee Woo Young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Presentation	Soyoung Ki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1) Subaltern Cosmopolitanism: 'Koryo' Cinema of diaspora archive and Exile Trilogy
	Hyun-Gwi Park (Chung-Ang University)	(2) History, de-territorialization, and politics in representation of <i>Koryosaram</i>
	Steven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3) Framing the Soviet Koreans: Three Comparative Approaches
Discussion	Sungkyung Kim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Kyoo Le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Sangjoon Le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ession 2: Koryo' Cinema Round Table**

Chair	HA Seung Woo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Discussion	Jie-Hyun Lim (Sogang University), Kim Jungkoo (Ewha Woman's University), Walter K. Lew (Korean American poet, scholar)	

## 언론 속의 심연북한연구소

## 인터뷰

토론자로 나선 이우영 교수는 남북교류에 대한 구상들이 쏟아지고 있는 최근 분위기에 대해 "정상회담 이후 모든 공공기관들이 갑자기 호떡집에 불난 듯 남북사업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국가 주도는 불가피하겠지만 민간, 시민사회 중심으로 교류의 방향을 점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또한 우리가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추동력이 되는 인프라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관련 분야 업무분장은 당장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제도적인 장치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우영, "남북문화관광교류 구상 쏟아지지만...인력·예산·북한이해 우선" / 메트로뉴스 2018.07.14.

구갑우 교수의 말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에서 새로운 용어와 개념의 '발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점이 흥미롭다. 이번에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란 용어가 등장했다. 그간 북한이 반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돌이킬 수 없는'(I)이란 조건이 빠진 게다. 미국 국내 정치와 맞물린 비핵화의 '정치적시간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중략)...이혜정 교수와 구갑우 교수의 이구동성이다. "뉴욕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총회장에서 전세계를 향해 평화와 비핵화 의지를 밝히는 연설 장면을 떠올려보자. 이어 백악관을 방문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3자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가는 문이 열리는,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의 9월을 상상해보자."

구갑우, "이제 남북미가 종전을 선언할 때" / 한겨레21 2018.07.08.

...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지난 11일 간담회에서 남북 경험 여건을 제재 완화 추이에 따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기존 사업 재개 및 소규모 사업 추가 △소규모 공단 조성 및 유통·식품·건설 등 내수 시장 겨냥한 투자 △에너지·통신·인프라·철강·화학 등 투자 △가전·자동차·ICT 등 대규모 투자 등 4단계로 제시했다.

양문수, "남북·북미정상회담 '기대감'...北제재 해제 앞당겨질까?" / 동아일보 2018.09.11.

김성경 교수(북한대학원대)는 '분단폭력 넘어 화해의 가능성'을 주제로 분단체제가 일반 사람들의 감정과 태도, 인식에 끼친 폭력적 영향을 살폈다.그는 "정치나 제도가 만들어 낸 변화로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며 "사회적 배제와 폭력에 반대하는 윤리적 주체가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이들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바꿔 낼 수 있는 정치적 힘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경, "관계 맺지 않으면 평화 없다" / 카톨릭뉴스 지금 여기 2018.09.13.

## 언론 속의 심연북한연구소

문화교류에 앞서 북한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 건 정서적 거리감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유튜브만 검색하면 조선중앙티브이로 방영된 다양한 북한 공연을 볼 수 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개방성을 보이면서 거의 실시간으로 북한의 모든 것이 유튜브와 에스엔에스를 통해 올라오고 있다”면서 “이제는 북한을 들여다보는 게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탈북 예술가들에 대한 관심도 늘었다.

이우영, “‘평화’의 이름으로…연극제 추진.성악가 초청” / 한겨레 2018.07.16.

## 칼럼

그나마 조중 접경지역에서는 ‘장난 삼아(혹은 관광상품의 일부로) 월경을 시도해볼 수 있지만 남북 사이의 분단선은 일반인의 접근조차 불가능하다. 지난 4월 분단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을 오가는 두 정상 모습에 우리 모두가 느낀 몽클한 감정은 지난 70여년의 분단이 그 보잘것없는 기다란 선에 투영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껏 절대로 넘어서도, 넘어설 수도 없었던 분단선을 넘는 것이 이리도 쉽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던 것이다.

(중략)…영화처럼 현실의 분단선은 여전한 위세를 과시한다. 하지만 영화가 그려낸 헤테로피아의 전복성도가 느닷없이 존재한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늙은 몸을 겨우 가늠 경계를 넘은 이산가족에게 분단선은 여전히 가혹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실천을 계속한다.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어색하게 마주한 이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서로 눈짓과 몸짓으로 교감하고, 그나마 처음으로 허락된 그들만의 시간 동안 짧지만 강한 헤테로피아를 만든다. 어찌면 스쳐가는 복도 한켠, 화장실 귀퉁이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좀 더 발칙한 상상을 해보자면 분단의 눈이 모두 잠든 아주 늦은 밤 아무도 모르게 만났기를 바란다. 솔직히 그들이 그 짧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분단 너머 그들만의 따뜻한 기억과 희망찬 관계를 만들었기를 소망한다. 옹기종기 모여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토록 잔인했던 분단선은 무력화될 것이며, 지난 세월의 고통 또한 조금이나마 치료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성경, [야! 한국 사회] 분단선 너머의 해방공간 / 한겨레 2018.08.22.



구 갑 우 (북한대학원대학교)

## 지식인이란 무엇인가(1)

나쓰메 소세키, 윤상인 옮김(2003), 『그후』, 민음사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에 서서 분과학문의 경계를 부수어 가는 인문학 공부를 하고 있는 c의 소개로 일본 메이지시대의 소설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의 작품을 읽고 있다. 거시담론에 골몰하곤 하는 나를 비웃지는 않지만 측은하게 여기는 c가, 사소한 것에 즐거움을 가져 보라며 나쓰메 소세키 읽기를 권했을 때, 다시, 또, 책이나 하며 저항하고 싶기도 했다. 원죄려니 하면서, 책을 잡기 전에 두 가지 생각을 했다. 하나는 한국근대의 소설가 이광수(1892-1950)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었다. 다른 하나는, 한국시장에서 잘 팔리는 오쿠다 히데오(奥田英朗)의 『남쪽으로 튀어』처럼, 과거를 추억하는 후일담(後日譚)이 미래를 기억하는 전일담(前日譚)이 되는 아프지만 유쾌한 경험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다.

그러나 두 생각 다 틀렸다. 나쓰메는 근대적 의미의 계몽을 하고 있지 않았다. 나쓰메의 소설들은 이광수의 『무정』의 등장인물처럼 생물학이나 수학과 같은 자연과학을 공부해서 새 문명을 열겠다는 의지가 없었다. 소설가 김영현의 짧은 평가(『나쓰메 소세키를 읽는 밤』)와 달리, 나쓰메와 이광수는 달랐다. 세상 속에 있지만 스스로를 세상과 유리시키려는 고독한 개인들이 거기 있었다. 사소하고 사적이었다. 기다리던 유쾌함도 없었다. 김영현은 나쓰메를 읽으며 ‘혁명’의 시대’였던 1980년대 한국의 문학을 회억한다. 나도 그랬다. 김영현은 ‘그’ 문학이 시대와 함께 “한 순간에,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음에 불편해 하면서 나쓰메는 “더 이상 아무런 적의도 불편함도 없이 지나간 시간을 여행하”는 느낌을 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나쓰메를 만나며, 또 김영현과 다르게, 불편했다. 사회과학 공부 주업인 나에게, 나쓰메의 소설들은, 지식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그 불편이, 그 질문이, 광기어린 독서를 하게 했고, 직업병은 해석서를 뒤지게 했다.

내가 접한, 『나는 고양이로서이다』부터 중기 3부작인 『산시로(三四郎)』, 『그후』, 『문(門)』과 후기 작품인 『마음』 등에는 지식인(intellectual)이라고 부를만한 인물이 등장한다. 그 지식인 가운데 한 명인

『그후』의 주인공 다이스케(代助)가 직장을 그만두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연적(戀敵)인 친구에게 하는 말이다:

오다 노부나가가 어느 유명한 요리사를 고용했는데, 그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처음으로 먹어보고 너무 맛이 없어서 심한 잔소리를 했다는군. 요리사로서는 최상급의 요리를 만들었는데 야단을 맞자 그 다음부터는 적당히 이류 내지는 삼류의 요리를 주인에게 만들어주었던 내내 칭찬을 받았다고 하네. 그 요리사의 경우를 보게. 생활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점에서는 빈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자신의 기술인 요리 그 자체를 위해서 일한다는 점으로 봐서는 매우 불성실한, 즉 타락한 요리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윤상인 옮김, 『그 후』)

다이스케에게 요리사, 즉 지식인은, 빵과는 무관한 신성한 일을 하는 사람 ‘이어야’ 한다. 다이스케 자신이기도 한 그 지식인은, 친구와 식객에게 부잣집도 런님이나 놀며 지내는 사람으로 보일 뿐이다. 나쓰메의 지식인들은, 세상을 등진 태평한 ‘일민’(逸民)이자, ‘고등유민’(高等遊民)이다.

나쓰메는, 일본근대의 서막이었던 메이지시대(1868-1912)를 살았다. 도쿄제국대학 출신이고 영국유학을 했으며 도쿄제국대학에서 가르쳤고, 아사히신문에 취직하면서 소설을 팔리는 상품으로 만들었다. 그 이력의 나쓰메가 그리는 지식인은,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말의 장사꾼”인 서구적 의미의 지적 노동자(자크 르 고프, 『중세의 지식인들』)가 아니다. 메이지시대에 “수명이 무한한 생물”인 국가의 일에 관여하면서 천황을 “현인신”으로 만들어 가던 지식인도 아니다(다치바나 다카시(立花隆)의 『천황과 도쿄대』). 물론, 제정 러시아에서 기존 질서의 전복을 꿈꾸었던, 나쓰메 당대의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와 같은 무정부주의자처럼 천황제에 정면으로 맞섰던 비판적 지식인(intelligentsia)도 아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해 성공적으로 유산상속을 받지 못했지만 근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봉건적 유제를 간직하면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지식인들이다.

## 칼럼 연재

나츠메가 전근대와 근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인’이었기 때문일 수 있다(황지헌 옮김, 『나츠메 소세키 문학 예술론』). 나츠메의 문예론은, “동양적 근대문학”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의 지식인들이 선택하는 자본과 권력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반(反)근대적 삶에는 내용이 없다. 무슨 주의(ism)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들이 책을 읽는다고 하지만 무슨 책을 읽는지 알 수 없다. 나는, 『그후』의 역자 윤상인의 지적처럼, “게으를 수 있는 권리”만을 볼 뿐이다. 삶 그 자체가 형태로 묘사되는 그들은, 삶의 형태로 ‘만’ 반근대를 표현할 뿐이다. 담론투쟁도 정치투쟁도 하지 않는다. 형태가 존재다. 나츠메는 그 삶의 형태를 “개인주의”로 부른다. 나츠메가 “가까스로 생각해”낸 “자기본위라는 네 문자”가 그의 개인주의의 요체다(김정훈 옮김, 『나의 개인주의 외』). 나츠메는, 자기와 타인, 권력과 의무, 금력과

책임이 함께 가는, 국가주의에 반하지만 국가를 부정하지 않는 심지어는 신민(臣民)으로서의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소박한 개인주의를 그리고 있다. 국가적 도덕이 개인적 도덕보다 등급이 낮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신학자 라인홀트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떠올리게 한다.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의 지적처럼(『나는 소세키로소이다』), 나츠메의 지식인들은 퇴화된 남자들이다. 나츠메에게 그 퇴화는 자본과 권력에 대한 나름의 저항을 표현하는, ‘그 때 거기서’의 “급진주의”였다. c의 의도는, 내용의 과잉에 허우적대며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와 우리에게, 사소한 듯 보이지만 존재 그 자체일 수 있는 ‘형태의 급진성’을 지금-여기서 일깨우는 것이지 않았을까, 하는 급진적 착각에 빠져 본다.



세계문학전집 87

근대문학

그 후

윤상인 역

나츠메 소세키 문학인 문집

민음사